

## 大學민주화와 教授권위

孫 東 鉉

(成均館大 哲學科)

마침내는 대학 교정에서 학생이 교수를 폭행하는 사건까지 일어났다. 실로 驚愕과 慨嘆을 금치 못할 일이다. 어떤 理念的 葛藤이나 社會的 公共性을 띤 문제로 야기된 사건도 아니었다는 데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 크다. 이번 사건은 일방통행로를 거슬러 차를 몰고 가던 학생의 沒常識이 이를 更正해 주려던 교수의 常識을 목살함으로써 생긴 것이다. 가뜩이나 혼탁한 교육 풍토 속에서 작은 일에서나마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보겠다는 ‘보통’ 교수의 교수로서의 의욕이 無分別·無原則에 걸들어 온 ‘특수’ 학생들의 학생답지 않은 밀어붙이기식 억지에 짓밟혔던 것이다.

그러니 이제 우리 대학 사회에서는 民主化나 社會正義 實現이니 하는 ‘큰’ 문제들에서만 教授·學生의 관계가 허물어진 것이 아니고, 일상 생활에서의 道義的 ‘작은’ 문제에 있어서조차도 그 기본적인 관계가 깨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렇듯 ‘작은’ 문제에서조차 教授·學生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다는 것이 실은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배우고자 大學에 들어 온 학생이 가르치는 교수를 거꾸로 ‘가르치고자’ 한다면, 이는 이미 大學이 存立하기 위해 요구되는 最少限의 規範마저도 파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知性和 良心이 숨쉬는 최후의 보루는 역시 大學이라 하여 大學에 거는 社會的 期待는 사뭇 크다. 研究하고 教授하고 學習하는 일이 모두 知性에 의거하고 良心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리라. 대학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位相을 차지하는 또다른 이유는 바로 그 곳에서 우리 사회의 장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이 이 課題를 수행할 力量을 기르기 위해 힘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知性和 良心의 道場에서 일어난 反知性和 反人倫의 극치를 달리는 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굳이 學生運動의 변화된 양상에 국한시키지 않더라도 오늘날의 大學生 一般에게서 보여지는 무분별한 行動方式은 우선 ‘民主化’로 집약되는 근년의 政治社會的 變化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民主化에로의 變革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民主化란 그 핵심에 있어 專制的·權威主義의인 下向式 의사 결정 방식을 철폐하고 구성원 모두가 平等하게 참여하는 民主的 의사 결정 방식을 정착시키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러니 大學生이, 그것도 이러한 민주화에

의 변혁을 실제로 주도해 왔고 아직도 주도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는 처지에, 크게는 國政에 참여하고 작게는 大學運營에 참여하려 하는 것도 一見은 타당한 듯하다.

그러나 여기서 오늘의 대학생은 대등한 참여만을 고집하기에 앞서 참된 의미에 있어서의 '民主的' 秩序가 무엇인지, 그 질서를 定着시킬 '民主的' 方式은 어떠해야 하는지, 또 거기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구성원 모두의 '民主的' 態度는 어떠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아직 배우는 자, 준비하는 자로서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는 무차별적 同等은 민주적 平等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요, 민주적 秩序를 '爭取' 하라고 反民主的의 수단을 동원한다면 그렇게 爭取된 것마저도 民主的인 力能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內面의 人格的 道德性이 결여될 때에는 아무리 훌륭한 제도적 장치도 바람직한 民主社會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民主市民'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大學內에서 그러면 '民主學生'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대등한 學內 構成員이라 해서 教授 앞에서 배우려는 자세마저도 버려야 하는가? 人格的 平等性을 견지하면서도 가르치고 배우는 본분상의 차이를 존중할 길은 과연 없는가? 바로 여기에서 民主的인 大學社會에서의 教授의 權威가 다시 음미되어야 한다.

教授라는 신분만을 내세워 학생 위에 군림하려는 낡은 權威主義는 청산되어야 한다. 그러나 가르치는 자로서의 教授의 權威는 살아 남아야 한다. 權威란 우리의 행동을 제약하는 外的 強制力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內的 說得力이다. 教授가 教授로서의 권위를 잃으면 학생은 그에게서 배움을 얻기 어렵다. 權威란 스스로 부여한다고 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그의 能力과 德性을 인정할 때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다. 教授의 權威는 누구보다도 學生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다. 學德이 결여된 教授가 억지로 권위를 자부하고 내세우려는 권위주의는 배격되어야 하지만, 教授와 학생 사이에서 教授의 權威가 사라진다면 大學教育은 그만큼 不實해지게 되는 것이다.

民主化에의 變革을 위해 지난 날 학생이 쏟아온 희생과 노력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희생과 노력이 이제 학생이 教授의 권위를 거부하고 教授와 동등한 권한을 가짐으로써 '報償'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큰 잘못이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이 대학생 일반에 확산된다면 教授와 學生 간의 教育的 關係는 파괴되며 大學教育은 왜곡되고 不實化될 수밖에 없다. 教授에게 폭행까지 할 수 있는 대학생의 생활 감각이 바로 이러한 교육적 위기 상황에 대한 경고라고 생각되기도 한다.

6 共 출범 이래 대학의 교육적 상황이 줄곧 악화되는 와중에서 그 責任의 일단을 분명히 학생에게 돌리며 이를 叱責·矯正하려는 교육적 노력이 얼마나 있었는지 教授들은 이를 크게 반성해야 할 일이다. 지난 날 정치 권력의 횡포 앞에서 無氣力했듯이 이제는 그 횡포를 이겨냈다고 자임하는 학생들의 물리적 억지 앞에서 무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혹 오늘의 教授像은 아닐런지? 教授 모두에게 이러한 疑懼가 다 돌아가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대학 운영의 職責을 맡고 그 責任을 다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이 自責嘲의 비난이 누구보다 먼저 고통스럽게 들려야 할 것이다.

教授는 이제 용기를 갖고 대학생들의 민주화에 대한 그릇된 시각을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 정상적인 大學教育과 학생들의 장래를 위해서이다. 그러려면 먼저 教授로서의 권위를 회복해야 한다. 나태, 용기 부족, 세속적 욕망 등으로 인해 스스로 포기한 권위를 되찾기 위해서는 치열한 학문적·인격적 연마의 길 외에 다른 것이 없다. \*